

# 도교육청, 올해 미래교육 기반 다져

###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률 57.6%까지 올라... 내년 보급 완료 에듀테크 플랫폼 기능 개선 등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약

전북도교육청이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시작, 당시 21.4%로 전국 꼴찌 수준이던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57.6%까지 끌어 올렸다. 내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수학습 지원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직무연수 5,300여 명을 비롯해 총 1만6,7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또

한 스마트기기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교원이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에듀테크 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전문적 교원 양성을 위해 MS코리아, 네이버클라우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교원-교육청-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에듀테크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진단·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더불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11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이하 '플랫폼') 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플랫폼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페스', 학생의 교수학습데이터를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내쉬보드'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개발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추진도 순항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 인됐다. 향후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설명회, 전주시와의 협약 체결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북 미래교육 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와 전자철판 보급으로 수업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졌다면 내년에는 내실화를 다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내 유일 한옥 헌혈의 집, 전북대에 문 열어

국내 유일 한옥형 헌혈의 집이 26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 문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구정문 앞 한옥 건물에 동지를 둔 '헌혈의 집 전북대 한옥센터'는 전북대 학생회관 공사로 인해 이전했던 기존 전북대 헌혈의 집을 특색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마련해 개소하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혈액관리본부 조남진 본부장, 전북은행 백종일 행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 등 대한적십자사 및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 헌관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헌혈의 집 전북대 한옥센터는 156.69㎡ 규모로 체혈침대 5개와 합장제혈기 3대를 갖추고 있으며, 연 7천여 명의 헌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의 한옥형태의 헌혈 의집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되고, 더불어 구정문 앞에 위치해 있어 대학 상권과 한해를 아우르는 지역적 접근성도 용이해 헌혈인구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그동안 전북대 헌혈



26일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이 국내 최초로 한옥센터로 개소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의집은 혈액의 안정적 공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한옥 헌혈센터 개소로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사

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전북대가 사랑과 봉사 정신으

로 무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결원 생긴 자리에 신규교사 배치 기존 전보 대상자들의 박탈감 커”

###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중등인사 개편 관련

### 도교육청, 중등교사 경력 불균형 완화 방침

### 저경력교사 비율 높은 학교에 신규교사 배치 않기로

전북도교육청이 저경력 교사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원이 생긴 자리에 경력기 아닌 신규교사부터 배치하려는 전북교육청의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존 전보 대상자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이번 전보에 대한 단계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중등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전보 시행 직전 ‘모든 학교 신규 8%

이상 배치’라는 목표치를 설정해 학교의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4백여 신규 전원을 학교마다 우선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위 조항의 신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조항을 시행할 경우 생겨날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방법 및 규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율, 수준 조절 및 점진적 이행 과정 설정을 통해 교사들이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

특히 힘든 곳으로 신규발령 후 6년간 열심히 일하며 30대를 맞이한 첫 전보 대상자들은 전보에 맞춰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모두 어그러졌다며 큰 고통과 분노, 그리고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정원 외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신규교사를 배치해 중등교사 경력 불균형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결원 확정 교과 및 인원에 대한 신규·정원내기간제 교사를 지역에 균형 배치한다는 것. 올해 정원내기간제 교과교사는 377명이고, 2024년 2월 정년퇴직자는 47명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교의 정원대비 8%만큼 신규 및 정원내기간제 교사 우선배치 인원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및 정원내기간제 교사 우선 배치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우선 배치되지 않는 인원만큼 비선호 지역 및 학교에 신규교사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군산지역 등 저경력교사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교사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경력교사 특정지역 집중현상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다양한 경력별 교사들의 조화를 통한 활력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학술지 '마음공부'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마음인문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마음공부'가 한국연구재단 2023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관리체계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학술지에 대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등 등급을 부여하며, 등재후보학술지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실적으로 인정되고, 교수·연구원의 업적평가 등에도 반영되고 있다.

2020년 4월 창간한 '마음공부'는 물질문명이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공부를 구체화함으로써 인류가 겪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 그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술지로 현재 7집까지 발간됐다.

'마음공부'의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은 마음공부 및 마음공부 사회화를 위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써 학술연구 영역은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도 현장 활동을 통해 마음공부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학생 해외 문화체험 성과보고회

26일 전주대학교 수퍼스타홀에서 학생 해외문화체험 성과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평생 잊지 못할 값진 경험’

### 도교육청, 해외문화체험 성과 발표회

“평생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6일 전주대학교 수퍼스타홀에서 학생 해외문화체험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올해 학생 해외문화체험에 참여한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특히 이날 14개 시군에서 참여한 초·중·고교 학생들은 해외문화 체험을 준비하며 들뜨고 신났던 과정, 인상 깊었던 장소, 현지 사람들과의 체험 등을 공유했다.

올해 도교육청이 주관한 학생 해외문화체험은 일본·싱가포르·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5개국에 초·중·고교 학생 500명이 방문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체험에 참여한 원주중학교 김운서 학생은 “해외에 가보니 문화가 달랐지만 그곳에서는 보편적이라는 걸 생각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해외 연수에 다녀온 후 한결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올해 해외연수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를 꾀해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와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 안내

### 방학 중 학교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행정 사항 담아

전북도교육청이 2023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학교관리자료에는 겨울방학 중 학교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부서별 중요 정보 및 필수 행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오는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과 고입 전형 등의 일정을 담아 각급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학습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학생 주도형 방학 과제 제시 및 방학 과제 기준 등을 담았다. 확실적인 방학 과제를 지양하고,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탐구과제 및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계획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방학 중 지도를 위해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학생 수준에 적절한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프로그램, 내년의 강점 찾기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자

기 효능감 향상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 방학생활을 실천하는 방안도 담았다. 적정 실내온도 설정하기, 대기질력 차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방학중에도 위기학생 지원망을 계속해서 가동된다. 도교육청 위기관리지원단을 비롯해 긴급 상담기관을 안내해 학생들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대비해 보고체계 유지, 사전 대비 조치 점검, 예방 교육,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안내된 자료에는 각 사업별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필요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유아교육진흥원, 내년 운영계획 수립 소통의 장

### 단계별로 퍼실리테이션 진행... 교육공동체 한마음 행사도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이 2024년 운영계획 수립 및 협력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소통·나눔의 시간을 통해 2023년에 보람있던 일, 힘들었던 일,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싶은 일 등을 이야기하며 동료 간의 이해와 위로 및 상호협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4단계는 3회에 걸친 퍼실리테이션 과정 및 직원 간의 소통·공감을 바탕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2024년 운영계획 수립 및 협력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열린 교육공동체 한마음 행사.

으로 지난 22일 교육공동체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강혜정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주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원활한 지원과 상호협력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내년도에도 현장중심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